

같이 보기

다녀왔습니다① (직장인 동호회)



충북산업보건센터 골프 동호회 2021 볼빅배 직장 동호회 골프대회를 다녀오다



박진완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어느새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우리는 각종 외부활동이 제한된 시대를 살고 있다. 직장에서도 각종 회식과 미팅, 회의 등 다양한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 게다가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었던 사내 동호회 활동마저 위축되게 만들었다. 실제로 충북산업보건센터 축구 동호회를 비롯 스포츠 동호회 활동이 없어졌다.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만 만들어낸 안타까운 현실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코로나 시대에 안전하게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소규모로 즐길 수 있는 골프다. 실제로 TV예능프로 및 다른 언론매체에서 최근 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실감할 수 있다. 충북산업보건센터 직장인 골프 동호회가 골프대회에 참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내기자가 동행했다.

직장 골프 동호인을 위한 작은 축제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산업보건센터 골프 동호회인 '골프는 장생포사팀'은 골프를 좋아하는 충북산업보건센터 직원들이 모여 만든 직장인 골프 모임이다. 소규모 인원으로 시작해 지금은 약 2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충북산업보건센터에서 가장 큰 규모의 스포츠 동호회다.

장생포사팀은 '2021 볼빅배 직장 동호회 골프대회'에 참가하여 왕중왕전까지 오르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충북 충주의 동춘골프클럽에서 열린 이번 경기는 18홀 스트로크 플레이(Tee-Off 순차출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격은 동일 직장에 소속된 20인 이상 동호회라면 참가할 수 있었다. 대회 참가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대회 참가가 가능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산업보건센터 장생포사팀은 총 4명의 선수(김용우, 박찬중, 김완식, 양동진)가 1개 팀이 되어 경기를 펼쳤다. 왕중왕전에는 1, 2차 예선통과 팀과 패자부활로 올라온 팀이 참석했다. 대회는 SBS 스포츠 녹화중계와 언론사들의 취재 열기를 보니 대회 규모를 실감할 수 있었다.

대회 시작 전 충북센터 장생포사팀은 연습그린에서





퍼팅연습도 하고 사진도 촬영하면서 대회를 즐기고 있었다. 당일 동춘GC 페어웨이와 그린 컨디션도 좋아 보였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다. 대기업 소속 골프 동호회가 첫 번째로 경기를 시작했다. 수백 명의 회원을 갖춘 큰 동호회에서 자체 선발된 선수들이라 첫 경기부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였다.

부상 투혼을 이어간 충북센터 직원들

첫 티샷에 선 충북센터 직원들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아무래도 평소 연습할 시간이 부족했던 탓에 더욱 긴장한 것 같았다. 퇴근 후 틈틈이 시간을 내 스크린 골프장에서 함께 연습하고, 주말에는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늘린 실력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충주까지 오던 길에 “우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메이저 동호회의 프로와 같은 아마추어 선수들을 이기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대회에 참석하는 자체에 의미를 두자”라는 말이

뇌리에 스쳐 지나갔다.

우리 선수들은 같이 출전한 경쟁 동호회 선수들의 실력이 수준급이라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이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예선을 거쳐 왕중왕전까지 진출을 했으니, 지금까지 참석한 대회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성적이 아니었나 싶다.

선수들은 각자 최선을 다하여 경기에 임했다. 허리 통증이 심했던 김완식 파트장, 팔꿈치가 좋지 않아 보호구를 착용했던 양동진 과장 등 우리 선수들의 부상 투혼이 이어졌다. 부상에도 골프에 대한 이들의 뜨거운 열정은 박수 반기에 충분했다. 예선을 통과한 40개 팀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충북산업보건센터 장생포스 골프 동호회는 32위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으나, 프로급 실력의 선수들과 대등한 경기를 펼친 충북산업보건센터 장생포스팀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싶다. 더 많은 연습과 체력을 유지해 앞으로의 대회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